



충분히 잘 해냈고 분명히 잘할 수 있다

글 김은정(고양시 일산동구)

사람들은 ‘시작’과 ‘끝’이란 것에 조금 신중하게, 민감하게, 남다르게 반응한다. 나 역시 예외는 아니다. 왜 그럴까? 다른 듯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다.

첫째는 아쉬움 때문이 아닐까 싶다. 잘할 수 있었는데, 잘하고 싶었는데, 원하는 만큼 해내지 못해서 끝이 아쉬운 거다. 그래서 새로 시작할 때는 더 잘하려고 이런저런 계획을 잔뜩 세우는 게 아닐까 싶다. 둘째는 원하는 만큼 이뤄냈더라도 끝에 기쁨을 맘껏 즐기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번에 목표한 걸 해냈으니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시작은 더욱 야심 차다.

이 두 가지는 다른 듯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어느 쪽이든 시작에는 설렘이 있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 2020년의 끝자락은 조금, 아니 매우 아쉽다. 이유는 한 가지, 코로나19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시작될 때만 해도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연일 연신 휴대전화에서는 빨간 스피커와 함께 반갑지 않은 메시지 알람이 울린다.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그리고 3단계.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하고 있듯이 잘 해내고 있고, 우리 고양시도

‘고양 안심카 선별진료소’, ‘고양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 등을 통해 이에 잘 대처해나가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 자랑스럽게 이뤄낸 성과들이 있다. 그렇다고 이 상황에서 자축의 샴페인이라도 터뜨리자는 건 결코 아니다.

2020년의 끝은 코로나19가 안심할 단계로 접어든 것이 아니라서 아쉬기 짝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 잘 이겨내고 있다. 그러니 힘든 와중에도 잘했다며 토닥토닥해주고 2021년에는 더 잘하자고, 우리는 분명히 잘 해낼 거라고 다독다독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밤잠 설치며 수고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분들을 믿고 개개인은 마스크 잘(코와 입 모두 가리고) 착용하기, 손 자주 잘(손바닥, 손톱 밑까지 비누로) 씻기, 사람과 일정 간격 유지하기 등의 수칙을 지켜나가면 된다. 그러면 2021년의 시작은 2020년의 끝보다 웃음이 많아질 것이다. 2021년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안심 단계에 완전히 정착했다는 소식이 휴대폰에 연일 연신 울리길 간절히, 매우 간절히 바란다. 2021년은 코로나19 완전 정복의 해가 되기를…….

12월호 독자 후기



인혜정(고양시 일산동구)
암 환자의 사회복귀를 도와주시는 다시시작 안연원 대표님 이야기 인상 깊었습니다.



김선(고양시 일산서구)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부분을 모르고 있었는데 자세히 알려주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설문조사 참여자

강경숙, 강두민, 강은경, 구자준, 권춘연, 김국경, 김명식, 김미애, 김복남, 김선화, 김성민, 김성철, 김옥분, 김원중, 김정철, 김주일, 김판주, 김현수, 남기향, 노영주, 민경희, 박경순, 배병인, 서옥경, 송두월, 안민주, 양동린, 엄노열, 오상중, 오연서, 유한창, 이경혜, 이동렬, 이병선, 이옥순, 이은희, 이재을, 이종득, 이지혜, 임수희, 임흥재, 장미영, 전기홍, 정창재, 조한석, 최영식, 최제니, 한동선, 허양남, 현수미

시민의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 **원고종류**
수필·공트·체험수기·기행문·독후감·사진·만화 등 제한 없음
- **원고분량**
A4 용지 1장 이내(시·만화 등은 적정 분량)
- **원고마감**
수시 접수
* 채택되신 분은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보낼 곳**
10460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주교동) 고양시 언론홍보담당관실 <고양소식> 담당자
- **E-mail** gysosic@korea.kr
- **고양시청 홈페이지**
www.goyang.go.kr
(늘푸른고양/시정소식지)
-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yangcity